

“사람 중심의 활기찬 남구 위해 도전 계속하겠다”

반환점 민선 8기
김병내 남구청장

백운광장 뉴딜사업 완성 단계 ‘관광산업 활성화’ 가장 중요 ‘시간우체국’ 사업 계속 진행

“활기가 넘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김병내(사진) 남구청장이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22만 남구 주민 모두에게 즐겁고 생동감이 넘치는 일상을 전달 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보여 드리겠다”며 남구의 변화와 발전을 약속했다.

민선 7기와 지난 2년 동안 백운광장에서 시작된 변화를 동력삼아 남구를 사람 중심의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 청장이 내놓은 남구의 청사진이다.

김 청장은 “민선 7기 시절부터 공을 들인 백운광장 뉴딜사업이 지난 4월 ‘푸른길 브릿지’의 완공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푸른길 브릿지’는 봉선동과 백운동, 주월동을 연결해 통행이 불편했던 백운광장 일대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푸른길 브릿지에서 남구청사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백운호랑이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 김 청장의 구상이었다.

김 청장은 “스트리트푸드존 하루 평균 방문객이 600여명에서 토요일시장 이후 최대 3000여명 이상으로 늘면서 주변 점포 매출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 자랑했다.

김 청장은 “차량 통행 위주였던 백운광장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고, 만남과 약속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백운광장은 앞으로 사람과 문화, 경제를 아우른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민들의 원 주거지를 되살려 남구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것이 김 청장의 구상이었다. 김 청



장의 구상은 남구의 백운광장 뉴딜사업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 선정에 서부터 현실화가 시작됐다.

김 청장은 중심시가지형 외에도 양림동, 사지동, 방림2동에서 각각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형까지 4개 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에 더해 김 청장은 지난해 말 송암산단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 사업지로 선정에도 신경을 썼다.

156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송암산단이 자동차의 점검·정비부터 튜닝, 중고 매매, 폐차 등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미래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점이다.

김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효자 구청장’이라고 칭찬해주시는 게 가장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임기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진행해온 재생사업을 기반으로 구도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토요일시장과 스트리트푸드존에 몰린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게 하고, 동시에 인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까지 대형 공영

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김 청장의 계획이다.

또 김 청장은 사적용 시간우체국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신청자의 편지를 최대 100년까지 보관한 뒤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개발 중인 앱을 통해서도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내부 편지 전시관은 유명인과 위인의 편지 등으로 꾸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시간우체국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포르투갈의 유명 관광지 펠루서점처럼 시간우체국을 찾기 위해 전세계에서 남구로 몰려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모소 대나무는 4년만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그동안 깊고 튼튼히 자란 뿌리 덕분에 5년째부터 하루에 30cm씩 속속 자란다”면서 “지난 2년은 남구의 뿌리가 자리잡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남구의 눈부신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도심 속 물놀이장으로 오세요”

서구 씬머 풀강스·디제이 풀 파티
북구, 물놀이장 2곳 한 달간 무료

■서구·북구 물놀이·축제

서구	26~28일 화정1동-풍암동 물놀이·축제
	27일 서빛마루문예회관-서구빛고을극악전수관 미술콘서트·마당놀이
북구	26~27일 광주서초등학교 운동장 '제2회 우리동네 씬머 풀강스'
	27~28일 풍암신암로 일대 워터슬라이드 27일 서빛마루문예회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미술'



24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교 야외물놀이장 개장식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서구와 북구가 지역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도심 속 물놀이장을 열었다.

서구는 26일부터 28일까지 화정1동과 풍암동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물놀이와 축제가 진행된다가 24일 밝혔다.

27일에는 서빛마루문예회관과 서구빛고을극악전수관에서 미술콘서트와 마당놀이가 열린다.

26~27일 서구 화정1동 광주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제2회 우리동네 씬머 풀강스'는 학교 운동장에 대형·중형 워터슬라이드 및 수영장을 설치하고 물총대전, 미술공연, 댄스타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구 풍암동에서는 27~28일 풍암신암로 일대 (주은모아)파트-신암초등학교 사잇길)에 워터슬

라이드와 수영장을 설치하고 물풍선 피구 등 수준 게임, 물총놀이, 디제이 풀 파티 및 버블 폼 파티가 열리는 '스페셜 씬머 워터 페스타'가 개최된다.

북구도 산동고 천수공원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 조성한 야외 무료 물놀이장 2곳을 오는 24일 개장해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야외 물놀이장 2곳에는 '연령대별 맞춤형 풀장 4개(유아풀 2개, 어린이·청소년풀 2개)'가 500㎡ 규모로 조성되고 '에어바운스' 등 이용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설치된다.

또 물놀이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산동고 천수공원 397면, 동강대학교 201면), 매점, 풍물텐트, 파라솔, 그늘막,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제공될 예정이다.

북구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경사면 평탄화, 바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와 함께 의무 요원, 안전관리자 등 시설 곳곳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무실을 운영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풀장 물은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수질을 검사하고 이외에도 매일 소독 실시, 여과기 가동, 부유물 제거 등 철저한 수질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물놀이장 이용 시간은 점심 휴장(오후 1시~2시)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 등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광산구 찾아가는 상생보건소 확대 운영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광산구는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터로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를 지역 기관, 단체를 함께 참여시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하남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하남, 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산구노동조합대표자협의 회 등과 함께 '노동자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찾아가는 상생보건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산구는 지난 6월부터 바쁜 일정 등으로 건강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 일터를 찾아 건강 측정,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찾아가는 상생보건소 운영 효과 높이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폭을 확대하기 위해 광산구와 산단, 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 지역 기관, 단체가 협업, 협력한다는 취지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광산구는 하남지식산업센터에서 두 번째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기초 검사, 만성질환 관리, 직업 스트레스 심리상담, 작업 환경 분야 교육 등을 진행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기관, 단체의 의지와 힘을 더한 광산구 찾아가는 상생보건소가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더욱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유기적 협력, 협업으로 찾아가는 보건소가 건강한 노동자, 활기찬 기업을 잇는 순환고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 로컬매거진 '그래쵸' 창간



고 24일 밝혔다.

광주시 동구가 서남동 '인쇄의 거리' 이야기를 담은 간행물을 창간했다.

광주시 동구는 서남동 인쇄의 역사를 기록하고, '인쇄의 거리'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로컬매거진 '그래쵸(서)'(사진)를 발간했다

'그래쵸'는 서남동 인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록하고 서남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부터 마을의 소식과 정보들을 모아 인터뷰와 사진으로 담아낸 간행물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서남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부터 서남동 인쇄문화마을의 역사와 인쇄 공정, 인문학적 문화 자원 소개, 서남동 주민 인터뷰와 맛집 추천 등 서남동만의 특색있는 이야기가 담겼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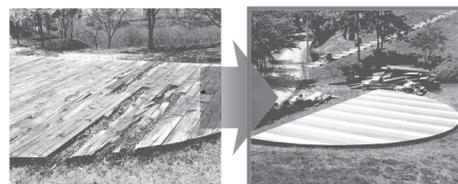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